

지역 **메아리**

김제우체국, 추석 봉사활동 실시

김제우체국은 지난 19일 김제시 김산동 소재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우체국 봉사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행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해온 김제우체국 우정사회봉사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김제시 홀로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50여명에게 쌀과 누룽지를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제 사회복지진흥과 발전에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최병철 회장은 김제우체국 봉사단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우체국 우정사회봉사단원들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행복나눔 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에 화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상하수도 일제점검 실시

김제시 상하수도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5일부터 상수도 시설물인 배수지, 가압장, 소규모수도시설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기시설 및 기계, 주요 급·배수관의 누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해 추석 전에 보수를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석연휴기간 동안 상수도대행업체 5개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비상급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상수도 급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료용 벼 시범재배 수확시연회

농협이 20일 김제시 부랑면 전주김제안주축협 관내 벼 재배 논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리승용 농촌진흥청장, 유관기관, 재배농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용 벼 시범재배 수확시연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주관한 이날 시연회는 논에 사료용 벼 재배 확대를 유도하여 쌀 과잉재고를 감축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사료용 벼 재배, 수확 시연외제 조 기술설명에 이어 종자 설명,기계장비 전시 등으로 이어졌으며 쌀 대체작물로서의 성공적 정착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관심 집중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등 컬러 콘텐츠로 진행

김제 벽골제에서 20일 막을 올린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가 2일차를 맞이하면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김제지평선축제를 이끌어 온 전통농경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기본 컨셉이 전통농경문화의 정체성 계승과 지역문화유산의 재구성성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으로 접목하고, 김제지역 고유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비경 '지평선'을 테마로 하여 김제시민과 관광객 참여를 골격으로 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김제지평선축제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김제지평선축제 하면 빠질 수 없는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와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는 잊혀져 가는 김제지역 실화와 지방민속자료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 프로그램으로, 금년은 Killer Contents로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진행된다.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는 매년



김제 벽골제에서 20일 막을 올린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가 2일차를 맞이하면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김제지평선축제를 이끌어 온 전통농경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월 대표로써 지역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7호인 김제시 입석마을의 선불에서 행해진 민속놀이로 남자와 여자가 대결하여 여자가 이기면 풍년이

드다는 전설에서 기원해 프로그램화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악단 신명놀이와 관광객 무동 태우기 등을 통해 관객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명품 종자생명산업특구 만들기 포럼 개최

김제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3층 대강당에서 이우천 부시장을 비롯한 나병문 시의회 의장, 특구전문가, 종자관련 기관 및 기업체, 시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학생 등 각계층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 종자생명산업특구를 만들기 위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우천 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종자산업은 미래 김제 백년대계를 이끌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20개 종자기업이 입주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중심으로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이번 특구 포럼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종자생명산업 메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와 종자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심의위원인 한광식교수, 특구평가위원인 홍운선 박사 등 특구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종자관련 전문가와 종자사들의 다채롭고 열띤 질문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와 연계

한 지역발전 방안과, 종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상생발전 방향 제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어, 발표자 및 패널들은 물론 포럼 참석자들 모두가 뜨거운 관심을 기울인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향후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특구의 확대 및 다양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종자생명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김제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와 기대를 갖게 되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16년 4월 1일 종자생명산업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특구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5년간(2016~2020년) 총사업규모 705억원을 투입하여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목표로 종자개발·생산·수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지원, 골든시드 생산지원, 종자전문 프론티어 양성 등 10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네시스 챔피언십' 화려한 막 올린다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의 잭 니콜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에서 개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에 본격 나선다.

제네시스는 한국 남자 골프와 국내 골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1일부터 나흘 간 인천 송도의 잭 니콜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파72, 7,366야드)에서 '제네시스 챔피언십' 첫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 남자 골프 및 국내 골프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신설된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총 상금 15억원, 우승상금 3억원으로 KPGA 코리아투어 대회 중 역대 최고 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개최 원년을 맞아 이번 대회에는 한국 남자 골퍼의 베테랑인 최경주, 양용은이 8년 만에 동반 출전해 골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美 PGA투어에서 활약 중

인 노승열, 김민휘 및 JTGO 상금 랭킹 1위의 김찬 등의 선수들도 참가한다.

우승자에게는 제네시스 G70 차량 부상 제공과 함께 美PGA 투어 2017/18 시즌 '제네시스 오픈' 출전 혜택 및 올해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THE CJ CUP @ NINE BRIDGES' 출전 자격까지 부여되는 등 막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지향하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개최함으로써 골프 문화 확산과 함께 대회 기간 동안 골프팬들과 고객들이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갤러리 이벤트를 마련한다.

제네시스는 '2017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선정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 빙 구르방 맛집들의 요리를 한자리에 모은 '미쉐린 푸드

존'을 선보이며 대회를 찾은 갤러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스낵 골프와 키즈시네마, 팝업스토어 운영 등 골프를 중심으로 한 풍성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대회를 찾은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동안 지난 15일 출시한 중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70의 시승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네시스 전 라인업을 전시하는 등 골프 마케팅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파이널 라운드가 열리는 24일에는 참가 갤러리 중 추첨을 통해 중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70을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가을 소식 알리는 코스모스 완주에 '활짝'

가을 소식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완주에 활짝 피었다.

완주 경천면 구룡천에는 2만3,100㎡ 면적의 코스모스 군락지에 꽃이 만개했고, 이를 보기 위해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관광객까지 찾아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군락지 이외 주변 제방길에도 코스모스가 식재돼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 허수아비와 바람개비를 설치, 코스모스와 어우러지며 사진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코스모스 식재에 적극 나선 주민들은 직거래 장터를 열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일 개장해 추석 전까지 열릴 직거래

장터에는 마을에서 생산한 두부, 아로니아 분말, 블루베리즙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오복마을 편백숲, 요동화암사가 위치해 당일 여행코스도 주목받고 있다.

봉동읍 원구만 마을도 코스모스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 봉동교부터 마을까지의 만경강 제방길 4km 구간에 코스모스를 식재해 아름다운 꽃길에 탄생했다.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코스모스 식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린 주민들 덕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만개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진안산업과
 063-430-2951